

지역 고용동향 심층분석 2

» 비수도권 청년인구의 유출과 수도권 집중:
최근의 변화

지역 고용동향 심층분석

비수도권 청년인구의 유출과 수도권 집중: 최근의 변화

김 준 영*

I 들어가며

● 목전에 다가온 인구감소

-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초저출산이 2002년 이후 17년째 지속되면서 인구감소가 기존의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져서 시작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
- 출산율이 2016년 1.18명에서 2050년에 1.38명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전제로 산출된 중위수준 인구추계(2017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31년에 5,297만 명으로 고점을 찍고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음(통계청, 「인구추계」 2017년)
- 그런데 합계출산율이 2017년에 1.05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 2018년에는 0.95명으로 감소,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인구감소는 통계청의 전망보다 약 10년이 앞당겨진 2020년대 초반에 시작될 수도 있음

● 인구감소와 지역 간 인구 양극화의 심화

- 인구감소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가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수도권과 대도시로부터 지리적으로 먼 농촌지역에서 인구감소는 이미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음
- 전국 226개 시군구 중에서 지난 10년(2008년~2018년) 동안 인구가 순감소한 지역은 144개 지역에 이르며, 특히 부산 영도구와 서구, 전남 고흥군, 경남 합천군을 비롯한 33개 시군구는 인구가 10% 이상 감소(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 이와 같은 지역 간 인구변화의 양극화 추이는 향후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¹⁾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ibangin@keis.or.kr)

1) 2008년에 총인구의 감소가 이미 시작된 일본의 경우 2010년~2015년 기간에 농촌지역과 비대도시(非大都市)에서 인구가 크게 감소한 반면 도교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입에 힘입어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였음(김준영, 2016)

◎ 지역 간 인구 양극화를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역 간 인구이동임

- 우리나라 전 인구의 구조와 규모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저출산·고령화이나, 단기에 지역 간 인구변화를 좌우하는 것은 출산율이 아니라 인구의 전출(轉出)과 전입(轉入)임
- 비수도권 청년층의 타 지역 유출, 특히 청년여성의 유출은 해당 지역 인구감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구고령화를 가속화시키고 지역의 활력을 떨어뜨려 결국 지역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²⁾
- 본고는 김준영(2016)의 방법을 활용하여 1984년~1988년 출생자와 1989년~1993년 출생자의 연령대 별 지역 간 이동 규모를 비교하고, 이를 통하여 비수도권 청년 인구의 순유출 규모가 최근 확대되었고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더욱 심화되었음을 밝힘
- 비교대상으로 1984년~1988년 출생자와 1989년~1993년 출생자를 정한 것은 본 연구의 분석자료인 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가 1993년부터 시군구별 5세 단위 인구 수를 제공하고 있어 해당 년에 5~9세가 되는 1984년~1988년 출생자부터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임

II 비수도권 청년의 유출과 수도권 집중: 1884~1988년도 출생자의 연령대별 인구규모 변동

- 본고는 '특정 연도 출생 집단(cohort)의 연령대별 인구규모'를 지역별 청년인구의 유입·유출 현황 분석의 기본지표로 활용
- <표 1>은 1984년~1988년에 태어나서 1993년에 5~9세가 된 인구를 100으로 둘 경우, 5년 후(1998년), 10년 후(2003년), 15년 후(2008년), 20년 후(2013년), 25년 후(2018년) 시점에서 해당 출생년도 인구집단의 규모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 줌
- 예를 들어 1993년에 5~9세 인구가 100이고 그 후 25년간 그 지역에서 해당 출생 집단 인구의 순유출이 0이었다면(즉, 유출인원 = 유입인원), 이 연령집단이 30~34세가 되는 2018년에도 인구규모는 100을 유지하거나 자연감소(사망, 해외유학, 이민 등) 요인에 의해 100을 근소하게 하회해야 할 것임
- 만일 어떤 지역에서 특정 연도 출생 아동이 청년으로 성장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대거 유출된 반면에 동일연도 출생 집단이 다른 지역으로부터 유입되지 않았다면(즉, 전출인구 > 전입인구), 이 출생 집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구규모가 100보다 작아지게 됨

2) 최근에 이상호(2018)는 「한국의 지방소멸 2018」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대비 20~39세 여성 인구의 비율이 0.5 이하인 지역을 '소멸위험 지역'으로 정의하여 분석한 결과 소멸위험지역이 2018년 89개로 늘어났다고 보고한 바 있음

〈표 1〉 특·광역시도 청년층의 인구규모 변화(5~9세 인구(1984년~1988년 출생자)=100)

(단위: %, %p)

연령	5~9세 (1993년)	10~14세 (1998년)	15~19세 (2003년, A)	20~24세 (2008년, B)	25~29세 (2013년, C)	30~34세 (2018년, D)	증감(%p)		
							B-A	C-B	D-C
전국	100.0	99.6	99.0	98.6	98.6	98.7	-0.4	0.0	0.1
서울	100.0	92.1	92.0	97.6	110.5	104.2	5.6	12.8	-6.3
부산	100.0	97.7	96.0	91.7	83.9	75.6	-4.2	-7.8	-8.3
대구	100.0	102.8	102.5	96.7	87.2	81.5	-5.8	-9.4	-5.8
인천	100.0	102.6	100.3	101.7	106.6	108.6	1.4	5.0	2.0
광주	100.0	107.1	107.8	103.9	99.2	93.3	-3.9	-4.7	-5.8
대전	100.0	108.9	109.9	110.4	108.2	102.6	0.4	-2.2	-5.6
울산	100.0	96.6	94.4	89.0	88.8	90.3	-5.4	-0.2	1.5
경기	100.0	106.2	109.5	117.9	131.2	145.1	8.4	13.3	13.9
강원	100.0	99.7	96.1	89.6	78.0	73.9	-6.5	-11.6	-4.1
충북	100.0	103.3	101.9	97.9	93.3	92.1	-4.1	-4.6	-1.1
충남	100.0	104.2	103.0	101.0	98.3	104.6	-2.0	-2.7	6.3
전북	100.0	101.6	99.4	86.9	75.3	67.9	-12.5	-11.6	-7.4
전남	100.0	97.3	91.2	76.7	64.4	61.3	-14.5	-12.3	-3.1
경북	100.0	97.7	94.9	89.8	82.6	77.3	-5.0	-7.2	-5.4
경남	100.0	97.5	95.2	89.7	85.5	86.8	-5.5	-4.2	1.3
제주	100.0	100.2	99.0	94.7	88.9	103.9	-4.3	-5.8	15.0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

주 : 1993년 시점에 존재하지 않았던 세종특별시는 분석에서 제외

- 이와는 반대의 상황, 즉 특정 출생 집단의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많다면(즉, 전출인구 < 전입인구),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출생 집단의 인구규모는 100보다 커지게 될 것임
- 이처럼 어떤 지역의 시점별 출생 집단의 인구규모를 비교하여 그 지역 청년인구의 유출과 유입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음

● 연령구간별 인구규모 변동의 의미

- 생애주기 상으로 20~24세는 대학 진학이, 25~29세는 첫 일자리 취업이, 30~34세는 첫 취업 이후 노동시장 정착의 위한 직장 이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시기임
- 만약 어느 지역에서 20~24세 시점(2008년) 인구규모가 15~19세 시점(2003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다면 이는 해당지역의 고등학생 중 다수가 타 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진학하면서 유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와는 반대로 20~24세 시점 인구규모가 15~19세 시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다면 이것은 해당 지역에 소재한 대학 진학을 위해 타 지역에서 청년 인구가 많이 순유입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한편, 특정 지역에 소재한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해당 지역에서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타 지역

으로 대거 이주하여 취업을 한다면 해당 지역의 25~29세 인구규모는 이전 시점 인구에 비해 감소하고 이 지역 청년들이 옮겨간 지역의 25~29세 인구규모는 이전 시점보다 커질 것임

- 25~29세 청년 중에서 일부는 취업 후 5년 이내에 근로조건이 더 좋고 자신의 적성과 더 잘 맞는 일자리를 찾아 이직을 함. 만약 다수의 청년이 타 지역에 소재한 기업으로 이직을 한다면 해당 지역의 30~34세 인구는 직전 시점(25~29세)보다 감소하게 되고, 이 지역 청년들이 이동한 지역의 30~34세 인구규모는 이전보다 증가하게 될 것임

● 비수도권 청년 유출의 첫 번째 계기: 대학진학

- 15~19세(2003년)까지는 청년인구 유출규모가 가장 큰 전남을 포함한 모든 특·광역시도에서 5~9세 인구(1995년) 대비 90% 이상의 인구규모를 유지하나, 대학진학 연령인 20~24세에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5년 전에 비해서 인구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표 1의 'B-A')³⁾
- 15~19세 시점과 20~24세 시점 사이의 청년인구 감소폭(%p)은 전남(-14.5%p)과 전북(-12.5%p)이 두드러지게 커서, 이 두 지역 청년은 타 지역 소재 대학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시사
- 전남과 전북 외에 강원(-6.5%p), 대구(-5.8%p), 경남(-5.5%p), 울산(-5.4%p)도 20~24세 인구규모가 비교적 크게 감소
- 비수도권과는 달리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대학 진학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한 비수도권 출신 대학진학자에 힘입어 20~24세 인구규모가 증가(표 1의 'B-A' 참조)
- 경기와 서울의 5~9세 시점 대비 20~24세 시점(2008년) 인구규모는 117.9%와 97.6%로, 15~19세 시점(각각 109.5%, 92.0%/2003년)에 비해 각각 8.4%p와 5.6%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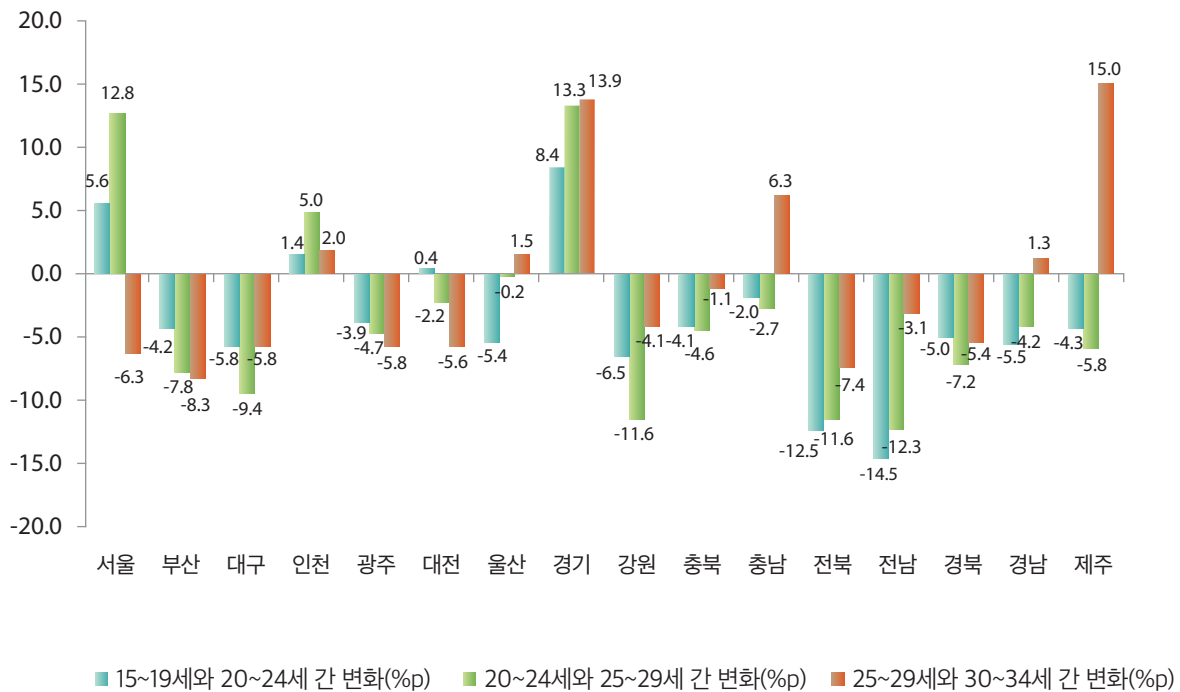
● 비수도권 청년 유출의 두 번째 계기: 취업

- 생애주기 관점에서 비수도권 청년의 유출과 수도권 집중의 두 번째 계기는 취업이며, 이 시점에 발생하는 인구유출 규모는 대학진학 시점(20~24세)보다 더 큼
- 대학 졸업 후 첫 취업 연령인 25~29세 인구는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모든 특·광역시도에서 감소함 (표 1의 'C-B' 참조)
-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광역시도 중에서 9개 광역시도(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제주)에서 인구감소 규모(%p)는 25~29세 시점이 20~24세 시점보다 더 큼(그림 1 참조)
- 20~24세와 25~29세 시점 간에 인구규모 변동을 보면 전남(-12.3%p), 전북(-11.6%p), 강원(-11.6%p)은 10%p 이상 감소하며, 광역시인 대구와 부산도 각각 9.4%p와 7.8%p 감소
- 전남과 전북은 15~19세에서 20~24세가 되는 시기에 큰 폭의 인구유출의 발생할 뿐만 아니라 25~29세가 되면서도 10%p 이상의 대규모 감소가 발생
- 이와는 달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20~24세보다 25~29세 시점에서 더 큰 규모로 인구가 순유입되었음

3) 타 지역 대학을 진학한 20~24세 청년 중 일부는 주민등록주소를 대학 소재지로 이전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4세의 실제 인구 감소 규모는 <표 1>에서 제시된 것보다 더 클 수 있다.

- 20~24세와 25~29세 사이의 인구 증가율은 서울이 12.8%p, 경기도가 13.3%p, 인천이 5.0%p로 어느 지역이든 20~24세 시점의 인구 증가율(%p) 보다 높음(그림 1 참조)

[그림 1] 특·광역시도 연령별 인구 규모의 변화(84~88년 출생자)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

- 이와 같은 수도권 25~29세 인구의 높은 증가율은 (1) 비수도권 소재 대학이나 학교를 졸업한 청년이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고, (2) 비수도권 출신의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자가 대학 졸업 후에도 출신지역에 돌아가지 않고 수도권에 남아 취업을 하기 때문임

● 30~34세: 비수도권 청년 인구 순유출 지속

- 30~34세에서도 다수의 비수도권에서 인구 유출이 발생, 특히 부산(-8.3%p), 대구(-5.8%p), 광주(-5.8%p) 등 광역시에서 30~34세에 적지 않은 규모의 인구 순유출이 발생
- 반면 30~34세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은 경기(13.9%p), 인천(2.0%p) 등 수도권을 비롯, 제주(15.0%p), 충남(6.3%p), 울산(1.5%p), 경남(1.2%) 등임
- 서울의 경우 30~34세 시점에 인구가 6.0%p 감소, 이는 25~29세 시점에 서울 소재 기업에 취업한 청년 중 일부가 결혼 등을 계기로 5년 후에 주거지를 서울 부근 경기도로 옮기고 서울로 통근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부산은 청년층 연령의 증가와 함께 청년인구의 유출 규모가 더욱 확대된 결과, 6개 광역시 중에서 5~9

세 인구 대비 30~34세 인구 비율이 75.6%로 가장 큰 폭으로 축소

- 비수도권 광역시 중에서 30~34세 청년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울산(1.5%p)이 유일, 이는 최근 조선업 부진에 따른 울산의 전반적인 고용상황 침체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제조업이 밀집된 지역 산업구조가 청년층 유입을 이끌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제주도의 경우 2010년대 이후 귀농, 귀촌 붐에 따른 타 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에 힘입어 30~34세 인구규모가 예외적으로 큰 폭(15.0%p) 증가

III 성별 비교

- ◎ 비수도권 광역 시도에서는 청년여성 인구가 청년남성 인구보다 더 큰 규모로 유출되고 있음(표 2 참조)
 - 남자와 여자 공통으로 청년 인구의 '비수도권 순유출-수도권 순유입'이 나타나고 있으나 유출입 규모는 남녀 간에 차이가 있음
 - 제주를 제외한 비수도권 광역도(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서 청년인구 유출규모는 여자가 남자보다 큼
 - 예를 들어 청년인구 유출 규모가 가장 큰 전남의 경우, 5~9세 인구 대비 25~29세와 30~34세 인구규모는 여자가 각각 60.8%와 59.7%로 같은 연령대 남자(67.9%, 62.8%) 보다 각각 7.0%p와 3.1%p가 작음
- ◎ 비수도권 광역도와는 달리 비수도권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는 청년여성이 청년남성보다 유출 규모가 작음
 - 부산의 5~9세 인구 대비 25~29세와 30~34세 인구규모는 여자가 85.3%와 77.4%로 같은 연령 남자(각각 82.6%와 74.0%)보다 각각 2.7%p와 3.4%p가 작음
 - 대구와 광주 역시 5~9세 대비 30~34세 인구규모는 여자가 86.0%, 94.8%로 같은 연령 남자의 77.7%, 82.0%에 비해 각각 8.3%p와 2.8%p가 높음

〈표 2〉 특·광역시도 출생연도별 인구규모 변화: 성별 비교

(단위: %, %p)

연령		연령시점별 인구규모(5~9세 인구=100)						남녀 간 차이(%p)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25~29세 시점(B-A)	30~34세 시점(B-A)
서울	남자(A)	100.0	92.4	91.7	92.8	104.1	99.2	13.4	10.5
	여자(B)	100.0	91.6	92.4	102.9	117.5	109.7		
부산	남자(A)	100.0	97.8	95.9	91.8	82.6	74.0	2.7	3.4
	여자(B)	100.0	97.6	96.1	91.6	85.3	77.4		
대구	남자(A)	100.0	103.1	102.3	96.7	84.3	77.7	6.5	8.3
	여자(B)	100.0	102.4	102.6	96.6	90.8	86.0		
인천	남자(A)	100.0	102.6	100.2	101.7	106.1	108.3	1.2	0.6
	여자(B)	100.0	102.6	100.3	101.6	107.3	109.0		
광주	남자(A)	100.0	107.3	107.2	103.2	97.5	92.0	3.5	2.8
	여자(B)	100.0	107.0	108.4	104.6	101.0	94.8		
대전	남자(A)	100.0	108.5	109.4	108.7	105.9	101.1	4.8	3.1
	여자(B)	100.0	109.2	110.5	112.2	110.8	104.2		
울산	남자(A)	100.0	96.4	94.5	91.2	90.0	90.1	-2.4	0.4
	여자(B)	100.0	96.9	94.3	86.5	87.5	90.5		
경기	남자(A)	100.0	106.1	109.3	116.5	130.6	144.3	1.4	1.7
	여자(B)	100.0	106.4	109.7	119.4	132.0	146.0		
강원	남자(A)	100.0	99.7	96.7	96.5	84.2	76.9	-12.7	-6.2
	여자(B)	100.0	99.8	95.5	82.4	71.5	70.7		
충북	남자(A)	100.0	103.2	101.8	100.5	96.1	93.9	-5.8	-3.7
	여자(B)	100.0	103.5	102.1	95.0	90.2	90.2		
충남	남자(A)	100.0	103.7	102.6	102.5	102.0	108.7	-7.7	-8.4
	여자(B)	100.0	104.7	103.4	99.4	94.3	100.2		
전북	남자(A)	100.0	101.3	99.7	90.7	78.1	68.4	-5.8	-1.1
	여자(B)	100.0	101.9	99.0	82.9	72.3	67.3		
전남	남자(A)	100.0	96.9	92.2	82.2	67.9	62.8	-7.0	-3.1
	여자(B)	100.0	97.6	90.2	70.9	60.8	59.7		
경북	남자(A)	100.0	97.1	94.9	91.3	84.2	77.1	-3.3	0.3
	여자(B)	100.0	98.3	94.8	88.2	80.9	77.4		
경남	남자(A)	100.0	97.3	95.6	93.1	87.3	87.1	-3.7	-0.6
	여자(B)	100.0	97.8	94.7	85.9	83.6	86.5		
제주	남자(A)	100.0	99.8	98.7	95.7	88.7	101.9	0.4	4.3
	여자(B)	100.0	100.7	99.3	93.6	89.1	106.1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

- 이처럼 비수도권이라도 광역도가 광역시보다 여성의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은 일자리 외에도 지역의 정주 인프라(주거, 문화, 의료, 교육 등)의 미흡이 비수도권 청년여성의 유출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
- ◎ 반면 수도권으로의 유입 규모는 청년여성이 청년남성보다 더 큼
 - 서울의 여성 5~9세 인구 대비 20~24세, 25~29세, 30~34세 인구비율은 102.9%, 117.5%, 109.7%로 같은 연령 남자(92.8%, 104.1%, 99.2%)보다 각각 10.1%p, 13.4%p, 10.5%p가 높음
 - 경기도 역시 20세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여자 비율이 남자보다 높고, 인천은 20~24세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근소하게 높으나 25~29세와 30~34세는 여자의 비율이 남자보다 각각 1.2%p와 0.6%p가 높음
- ◎ 이처럼 비수도권에서 청년여성 인구가 청년남성 인구보다 더 큰 규모로 유출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해당 지역은 출생아 수의 감소로 이어져 인구감소가 가속화돼 결국 지방 존속이 어려워 질 수 있음

IV 비수도권 청년인구 유출 규모의 최근 변화: 1984~1988년 출생자와 1989년~1993년 출생자 비교

- ◎ 대부분 비수도권 광역시도에서 1989~1993년 출생자는 5년 전(1984~1988년) 출생 집단에 비해 20세 이후 청년인구 유출 규모가 확대되었음
 - 출생연도 집단 간에 발생한 청년인구의 지역 간 변화는 '비수도권 유출 규모 확대, 수도권 집중 심화'로 요약할 수 있음
 - 두 출생집단 간에 20~24세 시점과 25~29세 시점의 인구규모를 비교하면, 1989~1993년 출생자는 1984~1988년 출생자에 비해 대부분의 비수도권 광역시도에서 인구규모가 감소(즉, 더 많이 순유출되었음)
 - 5~9세 대비 20~24세 인구규모를 보면 1989년~1993년 출생자는 1984~1988년 출생자에 비해 울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수도권 광역시도에서 감소, 이는 대학 진학을 위한 비수도권 청년 유출이 최근에 더욱 확대되었다는 것을 나타냄
 - 특히 전북, 전남, 대구, 광주, 대전, 강원 등 6개 광역시도에서는 20~24세 인구규모가 두 출생 집단 간에 10%p 이상 감소하여 청년 인구 유출 규모가 크게 확대(표 3 참조)

〈표 3〉 특·광역시도 청년층의 출생연도별 인구규모 변화 비교: 1984~1988년 출생자와 1989년~1993년 출생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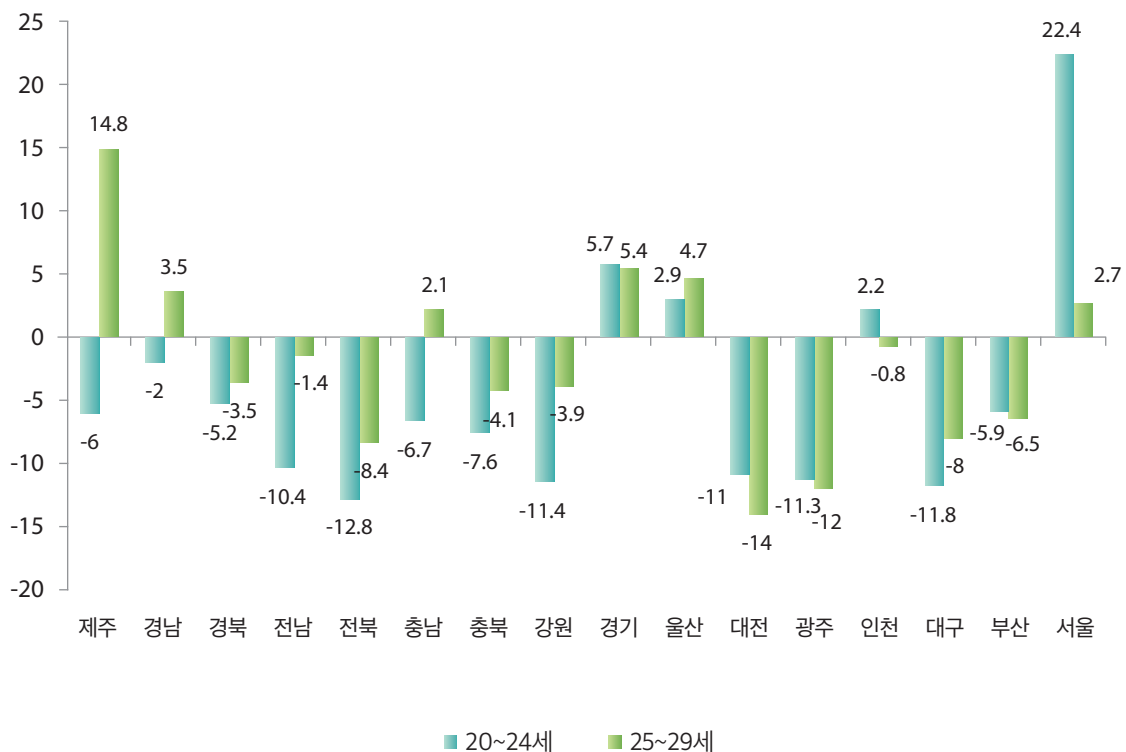
(단위: %, %p)

연령		연령시점별 인구규모(5~9세 인구=100)						출생집단간 변화(%p)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20~24세 시점(B-A)	25~29세 시점(B-A)
서울	84~88년 출생자(A)	100.0	92.1	92.0	97.6	110.5	104.2	22.4	2.7
	89~93년 출생자(B)	100.0	100.0	106.1	120.0	113.2			
부산	84~88년 출생자(A)	100.0	97.7	96.0	91.7	83.9	75.6	-5.9	-6.5
	89~93년 출생자(B)	100.0	98.2	93.8	85.9	77.4			
대구	84~88년 출생자(A)	100.0	102.8	102.5	96.7	87.2	81.5	-11.8	-8.0
	89~93년 출생자(B)	100.0	99.7	94.1	84.9	79.2			
인천	84~88년 출생자(A)	100.0	102.6	100.3	101.7	106.6	108.6	2.2	-0.8
	89~93년 출생자(B)	100.0	97.7	99.1	103.9	105.9			
광주	84~88년 출생자(A)	100.0	107.1	107.8	103.9	99.2	93.3	-11.3	-12.0
	89~93년 출생자(B)	100.0	100.6	97.0	92.6	87.1			
대전	84~88년 출생자(A)	100.0	108.9	109.9	110.4	108.2	102.6	-11.0	-14.0
	89~93년 출생자(B)	100.0	101.0	101.4	99.4	94.2			
울산	84~88년 출생자(A)	100.0	96.6	94.4	89.0	88.8	90.3	2.9	4.7
	89~93년 출생자(B)	100.0	97.7	92.1	91.9	93.5			
경기	84~88년 출생자(A)	100.0	106.2	109.5	117.9	131.2	145.1	5.7	5.4
	89~93년 출생자(B)	100.0	103.1	111.0	123.6	136.6			
강원	84~88년 출생자(A)	100.0	99.7	96.1	89.6	78.0	73.9	-11.4	-3.9
	89~93년 출생자(B)	100.0	96.3	89.8	78.2	74.1			
충북	84~88년 출생자(A)	100.0	103.3	101.9	97.9	93.3	92.1	-7.6	-4.1
	89~93년 출생자(B)	100.0	98.7	94.7	90.3	89.1			
충남	84~88년 출생자(A)	100.0	104.2	103.0	101.0	98.3	104.6	-6.7	2.1
	89~93년 출생자(B)	100.0	98.9	97.0	94.3	100.4			
전북	84~88년 출생자(A)	100.0	101.6	99.4	86.9	75.3	67.9	-12.8	-8.4
	89~93년 출생자(B)	100.0	97.8	85.6	74.1	66.9			
전남	84~88년 출생자(A)	100.0	97.3	91.2	76.7	64.4	61.3	-10.4	-1.4
	89~93년 출생자(B)	100.0	93.8	78.8	66.2	63.1			
경북	84~88년 출생자(A)	100.0	97.7	94.9	89.8	82.6	77.3	-5.2	-3.5
	89~93년 출생자(B)	100.0	97.1	92.0	84.6	79.1			
경남	84~88년 출생자(A)	100.0	97.5	95.2	89.7	85.5	86.8	-2.0	3.5
	89~93년 출생자(B)	100.0	97.6	91.9	87.7	89.0			
제주	84~88년 출생자(A)	100.0	100.2	99.0	94.7	88.9	103.9	-6.0	14.8
	89~93년 출생자(B)	100.0	98.7	94.5	88.6	103.7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

- 25~29세 인구규모 역시 1989~1993년 출생자는 1984~1988년 출생 집단에 비해 큰 폭 축소, 예를 들어 부산과 대구의 경우, 5~9세 인구 대비 25~29세 시점의 인구규모는 1984~1988년 출생자가 각각 83.9%와 87.2%였으나 1989~1993년 출생자의 경우 동일 연령 시점 인구규모가 각각 77.4%와 79.2%로 6.5%p와 8.0%p가 감소(표 3 참조)
- 광주와 대전 역시 두 출생 집단 간 25~29세 인구규모의 감소가 큰 폭 확대, 광주의 경우 25~29세 시점 인구규모는 1984~1988년 출생자는 99.2%였으나 1989~1993년 출생자는 87.1%로 12.0%p가 감소, 대전은 두 출생 집단 간 25~29세 인구 규모 격차가 14.0%p(108.2%→94.2%)로 확대(표 3 참조)
- 광역도 중에서 강원(-3.9%p), 충북(-4.1%p), 전북(-8.4%p), 경북(-3.5%p), 전남(-1.4%p)의 1989~1993년 출생자는 1984~1988년 출생 집단에 비해 25~29세 인구규모가 축소
- 반면에 울산(4.7%p), 충남(2.1%p), 경남(3.5%p), 제주(14.8%p)는 1989~1993년 출생자가 1984~1988년 출생자에 비해 25~29세 인구규모가 증가

[그림 2] 출생 집단 간 20~24세와 25~29세 인구규모 변화(1989~1993년 출생자 - 1984~1988년 출생자, %p)



주 : 양(+) 또는 음(-)의 부호 그래프는 1989~1993년 출생자가 1984~1988년 출생자에 비해 5~9세 대비 20~24세와 25~29세 인구규모가 증가(%p) 또는 감소(-%p)하였음을 의미

-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외의 경우 1989~1993년 출생자는 5년 전 출생 집단에 비해 청년 인구규모가 증가
 - 5~9세 대비 20~24세 규모를 보면 서울의 1989~1993년 출생자 규모(120.0%)는 1984~1988년 출생자 규모(97.6%)에 비해 22.4%p 증가, 인천과 경기의 20~24세 규모 역시 각각 2.2%p(101.7% → 103.9%)와 5.7%p(117.9% → 123.6%)가 상승
 - 25~29세 인구규모의 변화를 보면 1989~1993년 출생자는 5년 전 출생 집단에 비해 서울은 2.7%p(110.5%→113.2%p), 경기는 5.4%p(131.2%→136.6%) 상승, 반면 인천은 0.8%p 감소(106.6% → 105.9%)
- ◎ 이와 같은 비수도권 청년인구의 최근 유출 규모 확대는 비수도권 청년들의 지역대학 진학 기피 경향 심화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 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위기와 지역경제의 침체는 해당 지역 청년인구의 유출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이는 다시 지방대학과 지역사회 위기의 심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V 시군구 수준 분석

- ◎ 분석대상 213개 시군구 중에서 약 60%에 해당하는 127개 시군구에서 5~9세 인구 대비 30~34세 인구 규모가 80% 미만으로 감소
 - 30~34세 인구규모가 60% 미만으로 감소한 시군구는 81곳(38.0%), 60~80%로 감소한 시군구는 46곳(21.6%)임
 - 반면 5~9세 대비 30~34세 인구가 120% 이상으로 증가한 시군구는 39곳으로 213개 시군구의 18.3%를 차지
- ◎ 비수도권 광역시도 중에서 충북과 제주를 제외한 6개 지역(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에서 5~9세 대비 30~34세 인구 규모가 60% 미만으로 감소한 시군 비율이 50% 이상임
 - 특히 전북의 14개 시군 중에서 11곳(71.4%)이, 전남은 22개 시군 중에서 14곳(63.6%)의 30~34세 인구비율이 60% 미만으로 감소
 - 청년층 인구가 순유입(유입인구 > 유출인구)된 대전과는 달리 충남의 경우 15개 시군 중에서 9곳(60.0%)이 5~9세 대비 30~34세 인구규모가 60% 미만으로 감소

〈표 4〉 특·광역시도별 청년층 인구변화 시군구 분포

(단위: 곳, 괄호는 %)

	5~9세(1993년) 인구 대비 30~34세(2018년) 인구 비율					전체
	120%이상	100%이상~ 120%미만	80%이상~ 100%미만	60%이상~ 80%미만	60%미만	
서울	7 (31.8)	6 (27.3)	5 (22.7)	4 (18.2)	0 (0.0)	22 (100.0)
부산	1 (8.3)	1 (8.3)	0 (0.0)	6 (50.0)	4 (33.3)	12 (100.0)
대구	1 (12.5)	0 (0.0)	3 (37.5)	3 (37.5)	1 (12.5)	8 (100.0)
인천	2 (25.0)	2 (25.0)	2 (25.0)	0 (0.0)	2 (25.0)	8 (100.0)
광주	1 (25.0)	0 (0.0)	2 (50.0)	0 (0.0)	1 (25.0)	4 (100.0)
대전	1 (20.0)	1 (20.0)	0 (0.0)	2 (40.0)	1 (20.0)	5 (100.0)
경기	15 (48.4)	7 (22.6)	3 (9.7)	5 (16.1)	1 (3.2)	31 (100.0)
강원	0 (0.0)	2 (11.1)	0 (0.0)	7 (38.9)	9 (50.0)	18 (100.0)
충북	1 (9.1)	1 (9.1)	2 (18.2)	2 (18.2)	5 (45.5)	11 (100.0)
충남	4 (26.7)	1 (6.7)	0 (0.0)	1 (6.7)	9 (60.0)	15 (100.0)
전북	0 (0.0)	1 (7.1)	1 (7.1)	2 (14.3)	10 (71.4)	14 (100.0)
전남	0 (0.0)	0 (0.0)	4 (18.2)	4 (18.2)	14 (63.6)	22 (100.0)
경북	3 (13.0)	0 (0.0)	0 (0.0)	6 (26.1)	14 (60.9)	23 (100.0)
경남	3 (16.7)	0 (0.0)	1 (5.6)	4 (22.2)	10 (55.6)	18 (100.0)
제주	0 (0.0)	1 (50.0)	1 (50.0)	0 (0.0)	0 (0.0)	2 (100.0)
전체	39 (18.3)	23 (10.8)	24 (11.3)	46 (21.6)	81 (38.0)	213 (100.0)

주 : 1. 2018년 기준 행정구역 중에서 1993년의 5~9세 인구가 정확하게 식별되지 않는 7개 시군구(울산 중구, 울산 남구, 울산 동구, 울산 북구, 울산 울주군, 충북 증평군, 충남 계룡시, 충남 연기군)와 세종시는 분석에서 제외

2. 2018년 기준 행정구역상의 시군구 중에서 1993년 이후 이루어진 행정구역의 분리·신설·통합·폐지로 인해 1993년 시점의 5~9세 인구가 식별되지 않는 시군구가 있음. 이와 같은 행정구역 개편을 고려하여 시점 간 행정구역이 일치하도록 행정구역을 재조정하였음.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1993년은 성동구와 광진구, 구로구와 금천구, 강북구와 도봉구가 현재처럼 분리되기 전이므로 서울의 행정구역은 현재의 25개 구가 아닌 22개 구임

- 한편 수도권에서 30~34세 인구규모가 60% 미만으로 감소한 시군구는 서울의 경우 없으며, 인천과 대전은 각각 2곳(강화, 동구)과 1곳(과천)에 불과

● 5~9세 대비 30~34세 인구규모가 120% 이상으로 증가한 지역 39곳 중에서 수도권에 24곳(서울 7곳, 인천 2곳, 경기 15곳)이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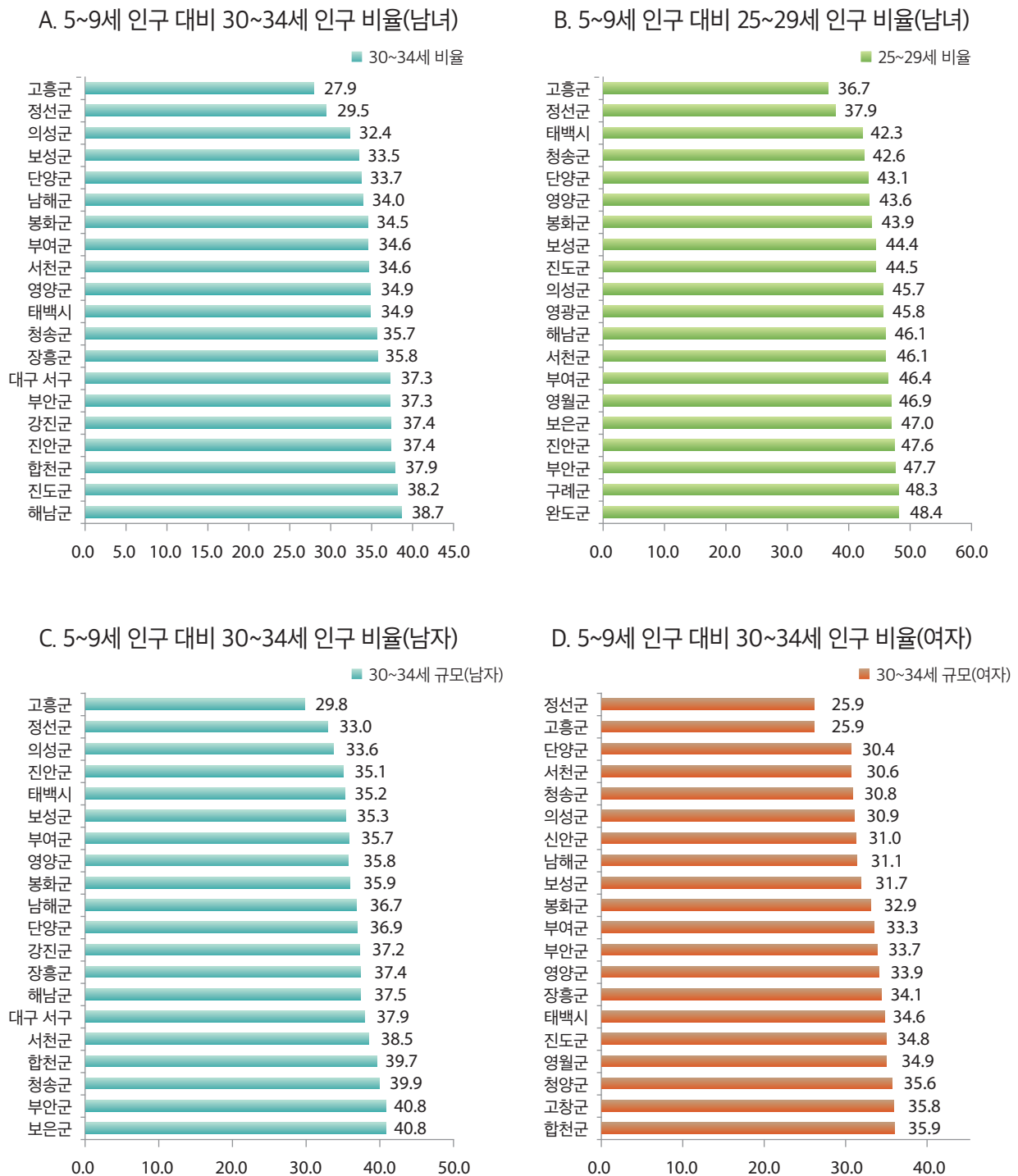
- 5~9세 인구 대비 30~34세 인구규모가 120% 이상 증가한 시군구의 비율은 경기가 48.4%(15개 시군),

서울이 31.8%(7개 구) 등으로 압도적으로 높음

- 반면 강원, 전남, 전북은 30~34세 인구규모가 120% 이상 증가한 시군이 한 곳도 없음, 특히 전남은 22개 시군 모두 30~34세 인구규모가 100% 미만으로 감소

[그림 3] 청년 인구규모 감소 상위 20위 시군구

(단위: %)



◎ 전남 고흥군, 강원 정선군은 전국에서 청년인구 순유출이 가장 크게 발생

- 5~9세 인구 대비 30~34세 인구규모는 고흥군이 27.9%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이어서 정선(29.5%), 의성(32.4%), 보성(33.5%), 단양(33.7%) 등의 순임
- 5~9세 인구 대비 25~29세 인구규모 역시 고흥군과 정선군이 36.7%와 37.9%로 가장 낮고, 단양도 43.1%로 감소율 기준 하위 5위에 포함
- 성별로 보면 청년 인구 유출 규모 최상위 지역 순위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남. 남자의 경우 30~34세 인구규모는 고흥(29.8%), 정선(33.0%), 의성(33.6%), 진안(35.1%), 태백(35.2%)의 순으로 감소(그림 3의 C 참조)
- 반면 여자의 경우 30~34세 인구감소 규모는 정선과 고흥이 25.9%로 가장 높고, 단양 30.4%, 서천 30.6%, 청송 30.8% 등의 순임(그림 3의 D참조)
- 이처럼 청년 여성 인구의 대규모 유출이 발생하는 지역은 여성 청년인구의 이탈 → 출생아 수 감소 → 인구고령화 진전 → 인구 감소 → 지역 활력 저하 → 여성 청년인구의 이탈 가속화 → 지방 존속 위험이라는 악순환 발생이 우려됨

VI 시사점

◎ 비수도권 청년인구의 감소, 특히 수도권으로의 유출은 단기적으로 지역 인구감소를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장기적으로 지역의 존속을 위협

- ‘청년인구 유출 → 지역 인구감소 및 인구고령화 가속화 → 지역 활력 감소 → 청년인구 추가 유출 → 지역 존속 위협’이라는 부정적 순환이 우려됨
- 특히, 비수도권 광역시도에서 남성보다 여성인구의 순유출이 더 큰 규모로 발생하는 것은 해당 지역 출생아 수의 감소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이상호(2018) 등이 경고한 ‘지방소멸’로 귀결될 수 있음

◎ 최근 비수도권 청년인구의 유출과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화

- 1989~1993년 출생자는 5년 전 출생집단인 1984~1988년생과 비교하여 대부분 비수도권 광역시도에서 25~29세와 30~34세 시점의 인구규모 감소 폭이 확대되었고, 수도권 유입 규모가 증가
- 이와 같은 비수도권 청년인구의 최근 유출 규모 확대는 비수도권 청년들의 지역대학 진학 기피 경향 심화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 비수도권 청년인구의 유출규모 확대는 지방대학의 위기와 지역경제의 침체를 반영한 것임

- 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위기와 지역경제의 침체는 해당 지역 청년인구의 유출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이는 다시 지방대학과 지역사회 위기의 심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지역대학 우수인재 양성 → 지역사회에 공급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청년인구 유입(유출 억제)과 같은 선순환 구조를 갖추기 위한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 ◎ 비수도권 청년인구의 유출을 억제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과 함께 질 높은 주거-교육-의료-문화-공공서비스 등 청년층의 정주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는 것이 중요
 - 정주 인프라의 개선은 비수도권 청년 여성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문헌

김준영(2016), “일본의 총인구 감소와 지역 간 인구 양극화의 진전”, 『고용이슈』 2016년 11월호, 한국고용정보원.

김준영(2016), “청년인구의 지방유출과 수도권 집중: 5가지 특징”, 『고용동향브리프』, 2018년 가을호, 한국고용정보원.

마스다 히로야(2014), 『지방소멸』(김정환 옮김), 와이즈베리

이상호(2018), “한국의 지방소멸 2018”, 『고용동향브리프』 2018년 5월호, 한국고용정보원.